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 사



2021. 8. 30.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존경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님 그리고 회원 변호사 여러분,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52년 창립된 이래 우리 사회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1989년부터는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30여 년의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이 대회를 훌륭하게 발전시켜 오신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여러분들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산업과 사회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소득의 양극화 및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19의 확산은 우리 사회와 인류의 미래를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사법제도는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법제도는, 그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누구나 믿고 기댈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의롭게 법을 적용하는 임무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임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법률가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변호사대회의 주제인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여러 목소리와 어려움을 우리들 스스로가 듣고 느끼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는 단순히 법전 속에 인쇄된 추상적인 제도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그 안에서 국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제도이어야 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고민하고 발전시키는 합리성과 이성이 빛나는 자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시대적 요구들을 조화롭게 수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읍시다.

다시 한 번 이번 변호사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